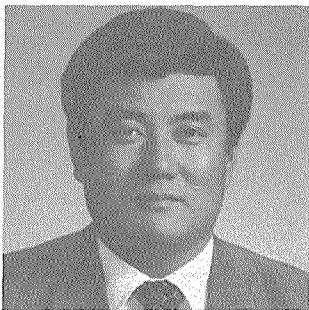


# 유가 인하와 합리적인 소비생활



鄭 鏞 得  
(한국소비자보호원 홍보과장)

**우리는** 마치 악몽같이 느꼈던 지난 70년대 후반의 2차에 걸친 오일쇼크(유가폭등)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석유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모든 물가는 계속 올라만 가고 있는데 석유값 만이라도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석유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밀접한 기초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석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유로 만든 비료로 재배한 음식이나 석유로 움직이는 교통수단 이외에도 각종 생활용품이나 스포츠용품등 모든 것이 다 석유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와같이 현대생활에 있어서 석유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석유가 없이는 하루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석유가 지난 '86년 2월 20일 유가인하이후 금년 6월 8일 유가인하시 까지 겨우 2년 남짓한 동안에 무려 5차례에 걸쳐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37.2%나 값이 내렸다. 지난 '86년 2월 20일 11.2%, 3월 20일 10%의 유가인하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16일 소비자가격 기준 평균 10.2%의 유가인하와 금년 3월 11일 평균 10.6%, 금년 6월 8일 평균 5.8%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인하되었다(표-1 참조).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유가 인하분과 정유회사들의 원유 도입에 따른 환율하락(원화절상)분 및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배럴당 0.5달러씩 징수해 오던 석유사업기금(석유안정기금)의 인하분, 관세율 인하분, 석유수출기구(OECD)의 원유 공시가와 실제 도입가격의 차액에 따른 정유회사의 정산 이익분등을 토대로 단행한 것인데, 이로써 우리는 도매물가와 소매물가에 상당한 인하효과를 거두었으며, 산업, 가정, 상업, 수송부문에 도 엄청난 원가부담 절감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실례로 지난 6월 8일 단행된 석유류의 국내 소비자가격 평균 5.8%의 인하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석유류가격(소비자가격기준) 5.8% 인하 시 도매물가는 0.34%, 소매물가는 0.03%의 인하효과가 있으며, 기초화학과 제지, 제철, 철강등 제조업의 평균 원가부담 감소효과는 0.26%, 운수업의 원가부담 감소효

과는 0.3~1.5%나 된다고 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산업부문의 경우 연간 918억원, 가정과 상업부문의 경우는 연간 313억원, 수송부문의 경우는 연간 839억원등 연간 모두 2,342억원이나 부담이 절감된다고 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자가용 승용차와 영업용 LPG 택시의 한달 연료비 및 시내버스와 고속버스의 한달연료비, 중앙난방식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한달 난방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 자가용 승용차 : 하루 5l (50km 주행)의 보통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월 7천2백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 영업용 택시 : LPG 택시의 경우 하루 476km를 주행한다면 월 2만6백33원이 절감된다.
- 시내버스 : 하루 약 130l (350km 주행)의 경유를 사용할 경우 월 1만5천6백원이 절감된다.

■ 고속버스 : 하루 약 240l (660km 주행)의 경유를 사용할 경우 월 2만8천8백원이 절감된다.

■ 중앙난방식 아파트 : 24평형은 겨울철 월평균 5만원에서 4만4천8백원으로 5천2백원이 절감되며, 32평형은 약 7천3백원이 절감된다.

■ 일반주택 : 월 1드럼의 저유황경유를 사용할 경우 종전 월3만7천8백원에서 3만7천원으로 약 8백원이 절감된다.

이와같이 막대한 경비절감 효과와 원가부담 경감효과를 거두게되는 국내 석유류값의 인하는 특히 요즘과 같이 계속되는 원화절상과 임금인상등으로 인해 경영압박과 채산성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업체의 경우는 그나마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또한 과거 日本이나 台湾등 우리의 중요 경쟁국에 비해 비싸기만 했던 국내 석유류 가격이 이제는 계속된 유가인하로 인해 오히려 훨씬 싸졌다. 경유의 경우 台湾

〈表-1〉 국내 유가인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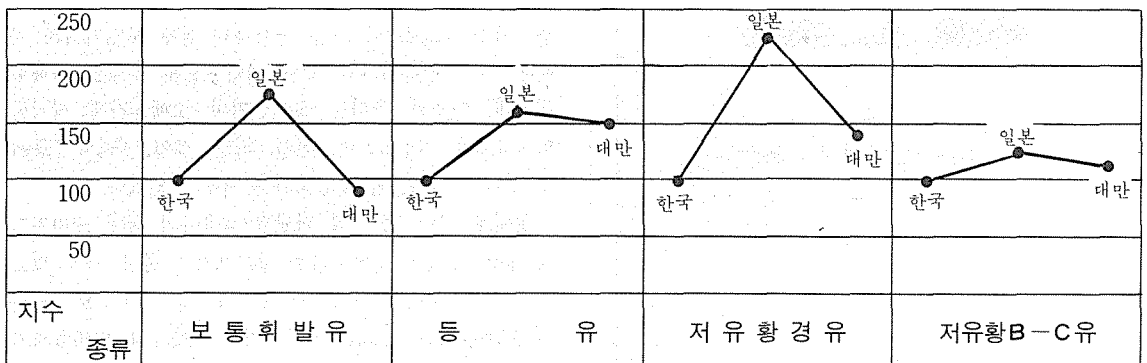
(단위 : %)

인 하 시 기	'86. 2. 20	'86. 3. 20	'87. 10. 16	'88. 3. 11	'88. 6. 8	계
세전 가격기준	12.93	10.70	11.01	11.74	6.39	41.2
소비자가가격기준	11.2	10.0	10.2	10.6	5.8	37.2

(자료 : 석유협회보 '88. 7월호)

〈표-2〉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비교

(지수 : 한국=100)



〈資料〉 석유협회보 '88. 7월호)

에 비해서는 32%, 일본에 비해서는 56%나 크게 싸졌다 (표-2 참조).

이와같은 석유류값의 인하는 에너지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원유값이 오는 91년까지는 배럴당 18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석유안정 기금도 현재 3조2천억원을 돌파하고 있어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음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화절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 및 강력한 물가억제, 소비자의 생활안정등을 위해서는 마땅히 석유류값은 더욱더 인하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필수 에너지인 만큼 또다시 밀어닥칠 위기(국제원유가 폭등)에 대비하여 현재의 유가인하 요인에 지나치게 만족하거나 느끼하지 말고 이럴때 일수록 더욱더 석유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겠다.

한편 이렇게 우리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내석유의 소비실태를 보면 지난 1964년 油公 蔚山정유공장이 처음 가동되었을때 겨우 총에너지소비에서 10%에도 미달되던 석유소비의 비중은 70년대 후반 석유위기전까지 연평균 25%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국제원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던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은 연평균 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1978년도에는 63.5%의 최고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석유소비의 높은 증가 추세도 2차에 걸친 오일쇼크를 겪고난 이후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년 동안에는 연평균 1%의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 안정세를 유지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석유소비 증가율이 안정세를 보이게 된 것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정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정책과 저에너지형으로의 산업구조개편시책등이 크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5년 이후부터 불어닥친 마이카 시대의 붐과 대형, 고급승용차의 선호, 레저인구의 증가, 소비생활의 향상 등으로 인해 석유소비가 또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류의 합리적인 소비와 에너지 절약은 정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는 국민(소비자)모두가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우리 모두 에너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의 선도자로서 「에너지 소비의 절약은 제2의 에너지 생산」이라는 신념으로 석유소비의 절약을 위해 우리의 주변생활에서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가꾸어 나아가야 하겠다. 이것만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복지국가를 앞당기고 진정한 소비자시대를 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도서안내□

# 석유의 이모저모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